

마음을 지켜라

잠언 4:18-23, 빌립보서 4:4-7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끝이다. 이미 끝났다.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란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서 19살 먹은 청년이 사고를 저질렀는데, 17명이 현장에서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지금 정신에 오는 질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울증, 공황증, 공포증, 분노조절장애, 대인 기피증 같은 문제와 함께, 각종 정신질환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1위 국가가 한국이다. 몇 년 동안 순위가 바뀌지 않고 있을 정도다. 2000년 이후에 정신질환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이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이런 정신적 어려움이 사회에 점점 심해져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는 부분이 명상운동이다. 뇌호흡, 기공체조, 마음수련 같은 것들이 유행한다. 그것을 사람들은 찾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구글 같은 세계 최고 회사에서 최고 명상 담당자를 임원으로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계속 명상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힐링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배경은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유대인 같은 3단체다.

그런데 이 명상운동의 특징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의식세계, 잠재의식, 무의식을 건드리면서, 자기가 주인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욕심을 비우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악령, 사단의 역사가 끼어들게 된다. 마태복음 12:43 이하에 말씀했다. 마음을 비우고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해 놓았더니, 거기에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 질병이 전 세계에 너무나 크게 넓게 확산되어 있다. 영적 질병 시대가 된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치유하는 참된 치유운동을 일으켜야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1. 마음의 질병이 오는 이유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마음의 질병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1) 본문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잠언 16:32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마음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2)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상처가 되어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의 마음은 그 상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짙 차 있었다. 이 마음을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던 것이다. 거기에서 형들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사울도 마찬가지다.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닌가. 그런데 다윗에 대한 질투가 일어났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철없는 외침에 상처를 받아서 질투심이 생기는데, 이게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상처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배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큰 실패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특히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면서 가진 상처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포장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았는데, 포장만 잘 해 놓고 숨겨서 다닌다.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성공은 하는데, 그 뒤에 똑같은 문제가 따라오게 되고, 특히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상처 없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 돈 있으면 상처 안 받겠는가?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지식이 많으면 상처가 없겠는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른다. 근본 배경이 열두 가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상처가 너무 깊숙이 들이박혀 있는 것이다. 분명히 살아있는 원수 사단 마귀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아담과 하와에게 틈을 탄 것처럼 딱 틈을 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엡4:27).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

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다. 육신 중심으로 보고 해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가진 채 바벨탑을 자꾸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속, 점술, 우상으로 사단이 파고들어 오는데, 그게 자기를 위호해 주는 줄로 착각한다. 그러다가 여섯 가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 잠언 4:19에,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으니까, 가다가 어느 날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공부 때문인 줄 알고, 또 돈 때문인 줄 알고 있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하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된다. 이 원수 악령, 마귀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 해야 하는가? 악인, 원수의 종,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바꿔 버려야 하는 것이다.

2.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상처가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체질까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포장하고 다니고 숨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다.

(1) 제일 먼저 되어야 할 부분은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악인의 신분 속에 있으면 그 길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상처를 없앨 수 없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복음으로, 그 상처가 오게 하는 근본 문제를 꺾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잠언 4:23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라고 했다. 근본적인 생명을 누리도록, 오직 복음으로 근본적, 근원적 해답을 얻어라.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잠언 20:9에 말씀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마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 앞서가는 지성인들은, 명상을 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0이 되고 해탈의 상태가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기가 마음을 바르게 먹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악인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24에 말씀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악령 아닌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6에,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 만나서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가 바로 그 길을 믿으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를 박살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을 회복하게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성령충만을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던 일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후로.

한번은 새벽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파출소를 두 군데를 지나야 했다. 그런데 파출소 앞에 아이가 하나 쓰러져 있었다. 이 아이가 다친 것 같았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정신박약 같았다. 어디에 사는지를 말하지 못했다. 쓰러져서 이 아이가 흡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바로 앞이 파출소인데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다. 옷을 털어주고 세수를 시켜주었다. 어머니는 벌써 밖에 나가시고, 내 상을 따로 차려 두셨더라. 다른 밥이 없으니, 내 밥과 국을 반으로 나눠서 같이 먹었다. 그때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보시더니, “자식, 지 동생들한테나 잘 하지.” 그러면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후로 내가 느낀 것이,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주의 생명이 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국의 모든 정계, 재계, 교계, 군의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심겨져기를 기도하자.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2)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지면,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상처의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 속에서 성화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처의 각인을 바꾸려면, 오직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새로운 각인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다. 오직 복음의 말씀인 것이다.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각인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반복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20년, 30년을 들어도 각인이 잘 안 되고 안 바뀌고 옛 생각으로 오펝이처럼 돌아가 버리는데, 반복하지 않으니 들어갈 참이 없는 것이다. 귀는 큰데 가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잠언 4:20-21에, “내 아들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예배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말이다. 복음소식을 비롯한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겨라. 각인시켜라. 뿌리내려야 한다. 내 체질이 바뀔 때까지다. 말씀의 흐름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로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계속 들으면서, 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게 내 마음, 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안착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3)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이때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4:6-7에 말씀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기를 축복한다. 말씀을 붙잡자. 기도로 그것을 누리도록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전도를 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현실화되었는지, 내 삶에 변화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씨벽이 보아야 안다. 내게 생명이 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는구나,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체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3오늘이 필요한 것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내 곁에, 우리 교회에 앉아있으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지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것을 해 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또 해 달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언짢아하고, ‘할 말이 저 말 밖에 없나’ 하면서 기분나빠한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정말 내 안에 성령 계신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마음에서 염려는 무너지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게 마음 치유의 핵심이다. 복음이 확립되면 마음이 치유되고 이것이 나가게 되면 서밋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인간 냄새가 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게 어떤 때는 빛으로, 어떤 때는 소금으로 나타난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다. “내 마음에는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가슴을 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은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4)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게 된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꿈 해석은 제 전공입니다. 술 말은 관원장도 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성공했습니다. 임금님의 꿈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꿈을 잘 풀다더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자기를 낮추고 한발 낮출 수밖에 없다. 뽐내고 교만해하는 자체가 악령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사과다. “그런데요” 하고 나오면 사과가 아니다. 변명이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감사로 바뀐 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치유가 된 것이다.

조울증,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병원에 갔다.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제가 약은 드리겠지만 치유는 안 됩니다. 치료약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 볼 테니 말이나 해 봐요.” “하루에 40번 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40번 만 하면 치유된다는 것이다. 무슨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데, 해 보라는 것이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전부 마취약이다. 너무 힘들 때 잠깐 억제하는 것뿐이다. “의사가 개떡같은 놈이 있구나.” 화를 내면서 돌아왔다. “내가 이 지경인데 무슨 감사란 말인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다. 죽고 싶을 지경이라고 한다.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이다. 조증, 울증을 조절을 못 하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의사가 미친놈이구나.” 그런데 와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자기가 이렇게 잘 못 해주는데도 남편이 돈을 벌고, 밥도 알아서 먹는 것이다. “그건 감사하네.” 한 번 감사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학교를 다닌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니까 감사를 또 했다. 이렇게 하나가 제법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이다.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선물을 들고 의사를 찾아왔다. “선생님이 주신 약 덕분에 제가 나았습니다.” 하루에 40번씩 감사하다가 불평, 불만, 짜증, 원망에 잡혀 있던 그 사람이 치유되어 버린 것이다. 치

유의 증거는 감사에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직 치유를 못 받은 것이다.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한다. 사도행전 5:41에 말씀했다.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 핍박, 환난이 무슨 감사인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한 것이다. 신약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만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치유된 것이다. 요셉이 그랬다. 바울이 그랬다. 여덟 번째 램턴트인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오직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을 탈 틈이 없는 것이다. 와서 좀 엿보다가 도망가 버린다. “마귀가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6:20의 일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날 것이다.

(5) 이 순간, 나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와 과거는 전부 의의 길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의 발판으로 바뀐다. 전도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 지나간 모든 시련과 역정이 전부 전도의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고 발판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응답을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올해 주신 말씀대로 치유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번주간 마음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현상과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축복한다. 잠언 4:18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제일 먼저 내 마음 구석구석에 의의 빛이 비취진다. 돋는 햇살 같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지게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 내 마음의 상태, 현장의 영적 상태가 한낮의 광명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다. 이 치유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요, 체험 하자는 것이요, 이 치유를 하자는 것이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병들어 있는 전 세상을 살리도록 치유운동을 하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선교대회를 잘 마쳤다. 마음치유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237개 나라 치유하는 치유운동을 마음에 품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교회 50주년사를 우선 선교사님들에게 다 나눠드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더라. “목사님, 50년사 책 잘 읽었습니다.” 과연 책을 읽겠는가 싶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사함속 기간 중에 밤에 시간이 남으니까, 다들 책을 보셨던 모양이다. 나도 그랬다. 한번 슬쩍 보려고 책을 폈는데 끝까지 다 읽어버렸다. 우리 이야기지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싶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복음을 가졌으므로, 복음을 체험했으므로, 복음을 소유했으므로, 그것을 누리다가 치유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치유받아야 한다. 사실 큰일에 상처받지 않는다. 큰일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극복하려고 힘을 합치게 된다. 그런데 하찮은 것을 가지고 싸운다. 한참 동안 헤어져서 같이 있지 못하게 된다. 화장실에 갔다왔더니 국이 다 식었다. “국이 다 식었네?”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장실에 있었잖아!” 이러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국그릇을 확 뺏어서 렌지에 돌렸다. 2분 만에 따뜻해진 국을, 말 한 마디 안 하고 다시 올려놓더라. “국이 식었네요? 내가 한 번 렌지에 돌려야겠네. 내가 화장실에 있어서 몰랐네요.” 이러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데, 집사람이 너무 분주한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이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언제나 사람이 될까. 내가 언제나 복음화가 될까.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 더 있어야,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있어야 변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2분 만 돌리면 따뜻해질 텐데 말이다. 집사람이 떠나고 간밤에 혼자 남아서 그 생각을 했다. 외로움이 뭔지를 알겠더라. (웃음) 마음을 그따위로 쓰면 이 일을 당해야 한다. (웃음) 여러분, 명절 지나고 상처받지 말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좋게 해석하라. 뭐 그렇게 해석해서 스스로 또 상처를 만들 것인가.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감사의 한 주년을 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잠언을 묵상하면서 62가지들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성취할 것인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상처 다 복음으로 치유받고,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명절 이후에 원수는 우리를 또 불화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원수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보다 천 배 더 약해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